

AI 시대 외국어 학습 언어 교육은 진화 중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서울】지난 8일, 청운관 지하 1층 KHUCC에서 류태호(동문, 언론정보학 1998)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수의 저서 『외국어 교육의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외국어 교육의 미래』는 지난 7월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된 신간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 교육법과 학습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이번 북토크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여전히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약 40명이 참석했다.

류 교수는 북토크를 시작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이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에 답했다.

이는 사전 질문에서 참석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주제였다. 류 교수는 “호모 커뮤니쿠스(소통하는 인간)가 생성형 인공지능과 만나는 이 시점은 언어학습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의 과정”이라고 답했다.

류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사소통에서 인간 통역사 역할을 재정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반인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에 필요한 독특한 어휘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습득하려는 전문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메타 등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이 정확한 문장 구사, 문맥 이해, 언어 최적화 등 핵심 역량을 이유로 언어학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외국어 교육이 문어 중심 학습에 치우쳐 있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1:1 맞춤형 학습 ▲다양한 상황별 실습 ▲실시간 표현 및 발음 교정 등이 인간 교사의 수업과 학습자의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Q&A에서는 “시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해석력·문화감각 등 인간 고유의 언어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류 교수는 “학습 목표, 방법, 활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단순히 외국어 문법 습득 여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적용·분석하고 창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북토크에 참석한 한국외대 독어과 졸업생 하윤서 씨는 “독어 교수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AI가 앞으로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지 고민하던 시기였다”며 참석 계기를 밝혔다. 이어 “이번 북토크를 통해 교수자 입장에서 생성형 AI와 관련해 어떤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외국어 교육을 더 연구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해정박물관 ‘세계의 고지도’전 29일까지 무료 관람

이주는 기자 jueun3302@khu.ac.kr

【국제】해정박물관 특별전 ‘세계의 고지도-역사 속 지리와 발견’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운영 시간에 맞춰 무료로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2025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시를 기획한 남희경 학예연구사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고지도에 깃든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발견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지도는 단순히 지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담아낸 창으로 다양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당시의 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인류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탐험했는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지도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고지도를 만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와 이슬람 학자 알 이드리스이가 제작한 지도를 비롯해 일본·중국의 고지도와 서양 초기 세계지도까지 한자리에서 전시한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이 세계를 바라



① 해정박물관 특별전 ‘세계의 고지도-역사 속 지리와 발견’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② 우리나라의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다양한 고지도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이주는 기자)

본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으며, 당시의 과학적 성취와 우주관도 엿볼 수 있다. 관람객은 지도 속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메시지를 비교하며, 세계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다.

해정박물관은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나침반 꾸미기’와 ‘신나는 세계 고지도 시계 만들기’는 어린이 관람객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전문 해설과 함께 동서양 및 한반도의 다양한 고지도를 직접 관람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 시계를 제작하며 창의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책 속에서만 보던 지도를 실제로 볼 수 있어 좋았고,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고지도를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 학예연구사는 “세계의 고지도를 통해 인류의 지리적 발견과 탐험의 역사를 조망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과학적 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고지도는 인류의 세계 인식과 탐험 과정을 보여주고, 과거의 지리적 이해가 현대 세계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성찰할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가을학기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 안내

- 평생교육과정
(전문가양성·교양생활·자격증취득)
- 최귀위 및 특별과정
(시니어모델과정)
- 학점은행제
(경영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건강관리학)



개강
9월 1일(월)부터 강좌별 해당 요일에 개강

접수일정
평생교육과정
2025년 7월 24일(목) ~ 8월 26일(화)

학점은행제
2025년 8월 4일(월) ~ 8월 26일(화)



접수방법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ice.khu.ac.kr>)

• 홈페이지 회원가입(신규)→수강신청→로그인→수강료 납부→등록완료

문의처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평생교육원 행정실
Tel. 031-201-3377 | Fax. 031-204-8124
E-mail. (평생교육과정) ice@khu.ac.kr,
(학점은행제) ice_khu@khu.ac.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글로벌관 305호

참고사항

- 교육 과정은 본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강좌별 수강 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